

社說

‘쪽지예산’은 정도가 아니다

2026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야 간의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정부는 올해보다 8% 증가한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는 12월2일까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 합의안 도출 및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헌법 및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법정 처리 시한이다. 현재 예결위는 이 법정 시한 내 처리를 목표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하여 세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11월17일부터 예산소위에서 본격적인 감액 및 증액 심사에 돌입했다. 여야 입장 차가 뚜렷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정부 첫 예산인 만큼 정부 사업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래 성장을 견인할 인공지능(AI) 등 분야에서 정부 예산안을 확실하게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제10야당 국민의힘은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예산 심사 과정에서 대대적 삭감을 목표로 집중 검증에 나서고 있다. 내년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으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들어 ‘빛잔치 예산’으로 규정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사업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 성 지출을 문제 삼고 있다.

이재명정부의 핵심 공약이 거론된다. 국민 성장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예산은 삭감 대상 1순위로 꼽힌다. 기본소득 시범 사업 등도 ‘선심성

국회 예결위 12월2일까지 본회의 처리 목표 예산소위 본격적인 감액·증액 심사에 돌입 환노위, 노총 지원비 110억 원 지원 명분 없어

예산’으로 규정해 삭감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된 선 대미 투자 약속(3500억 달러) 조달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처럼 여야는 예산안을 놓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데 이 와중에 직능 및 지역 사업을 위한 ‘쪽지예산’을 밀어 넣고 있어 국민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일지 의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전체회의에서 양대 노총 시설지원사업비 110억 원을 포함한 내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을 통과시켰다. 이 사업은 애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없었으나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심의 중 더불어민주당 측 요청으로 포함됐다고 한다. 이른바 ‘쪽지예산’ 성격으로 불쑥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여당이 부적절한 청탁을 수용한 결과는 아닌지 의심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에는 본관 사무실의 임차보증금 전환비용 55억 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에는 노총 중앙근로자복지센터의 승강기 교체 비용 등 55억 원이 각각 배정됐다. 민주당은 양대 노총이 정부의 노동정책, 노동 현안 등과 연계해 공익적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고, 다른 경제단체도 관례로 지원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노총은 한노총과 달리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후 복귀하지 않은 채 정부가 마련한 간담회에 간간히 얼굴을 비치는 게 고작인데, 공익적 역할을 다했다고 보긴 어렵다.

쪽지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예결특위 위원장, 여야 간사 또는 예결특위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에게 자신의 지역구에서 벌이는 특정 사업과 관련한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을 적은 쪽지를 보낸 후 이 쪽지가 반영된 예산을 말한다.

최근에는 쪽지 대신 휴대 전화 문자와 카카오톡 등으로 부탁을 하기도 해 카톡 예산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예산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여하튼 쪽지예산은 정도(正道)를 벗어나기에 자제해야 한다.

가을에 이별을 배운다



최문형의 만사만감
萬事萬感

중앙철학자
성균관대 교수

순하다 순한 가을 햇살을 맞으려 거실에 앉았는데 머리 위로 휘 하고 그림자들이 지나간다. 새들이 소리도 없이 날아가나 싶어서 고개를 들어보니 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군단이다. 나뭇잎들이 가을 바람에 우수수 떨어 지어 떨어지는 광경이다. 올해는 단풍 드는 모습을 유심히 보지 못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발생하여 관심을 놓은 까닭이다.

하지만 부지런하기로 소문난 나의 지인들은 그렇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들쭉거리며 서러울 뻔했던 풍경사진을 보낸다. 사진 속에 그분들은 없지만 활영할 당시 가을에 만취한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라

미소를 짓는다. 가을은 왜 우리를 이렇게 설레게 할까? 한동안은 이렇게 생각했다. 가을 나뭇잎은 은퇴하는 영웅의 모습이라고. 초봄부터 영차영차 세상으로 나와 뜨거운 여름 속에서 쉬 없이 일한 잎들의 당당한 은퇴식이라고. 조금 지나고서는 다른 생각을 했다. 나무에서 떨어져 땅을 구르는 잎들은 이제야 넓은 세상을 즐기며 진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건너편 나무의 잎들과 긴 세월 눈만 맞추고 지내다가 때가 되어 그들과 하나가 되어 재잘거리는 여행이 시작되었다고.

잎의 입장에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가을은 자신의 본심을 보여주는 때이기도 하다는 생각을 했다. 엽록소에 가려져 내보이지 못한 노랑과 빨간 색소들이 드러나는 때가 가을이다. 숨겨져 있던 이면을 공개하는 셈이다.

그런데 올해는 단풍을 보는 관점이 싸 달라졌다. 잎이 아닌 옹마나무의 입장이

되었다. 봄에 꽃을 피우고 싹을 내면서 시작된 나무의 한살이는 가을에 열매와 씨앗을 완성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때가 되면 나무는 모든 욕심을 거둔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열매를 스스로 베어내고 잎도 떨군다.

한 해의 면류관인 그들을 자신이 소유하지 않는다. 아무지도 야멸차게 끊어낸다. 햇살과 바람과 땅의 기운이 옹마나무를 도와준다. 바람이 한 번 불 때마다 옹마나무는 순차적으로 자식들과 이별한다.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나무의 별리(別離)를 보며 탄성을 내며 즐긴다.

우리는 왜 가을 나무를 보며 행복해할까? 그것은 변화 때문이다. 살아있는 것은 변화하기 마련이고 변화는 또한 다음 단계로 이끄는 성장이다. 푸른 잎들이 색깔을 바꾸고, 꽃이 진 곳에서 열매가 고개를 드는 것이다. 식물들의 변화는 우리

를 설레게 하고 살아있음을 일깨운다. 그들은 가을에 접어들 때까지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솟구치는 힘으로 우리를 응원했다. 살아내라고, 임무를 완수하라고, 힘들어도 해쳐 나가라고. 봄과 여름 산에서 그리고 숲에서 우리는 그들의 약진을 땀새 말고 듣고 보아왔다. 청년 같은 그들을.

가을부터 우리는 식물의 중년을 본다. 중년의 생명력을 배운다.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리는 나무가 갈무리하고 견어내고 변신하고 가벼워지는 기술을 훑쳐본다. 자식을 잘 키워 독립시키고 하던 일을 마무리하여 정리하는 힘을 본다. 이 또한 생명력이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지혜이다. 다시금 봄이 되면 자식은 자식을 낳을 것이고 내가 마무리 해둔 일은 누군가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모든 것을 끊어낸 나무는 겨울 동안 여유롭게 세상을 누릴 참이다. 결코 외롭지 않다. 새들, 작은 동물들, 곤충들이 찾아와 수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렇다. 다음 생을 위한 장엄한 이별은 불가피하다.

실손보험 전환 선부른 선택은 금물



바른 보험

김덕용
카라멜에셋
바른보험지점 대표

연내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가 예정되었지만, 내년 상반기에 최종적으로 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시행 규칙 등을 손보는 작업에 시간이 더 소요되는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접한 1,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 중 보험료에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분들이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이전에 4세대 실손보험으로 빨리 전환하는 게 나을지 문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답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보장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는 생각에 선부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최종 방안이 확실하게 발표되기 까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나쁘지 않을 듯하다.

현재 5세대 실손보험의 보장 축소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은 인터넷 검색을 통하여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실손보험이 없어서 새로 가입하는 것을 고민

세대별 실손보험 주요 특징 비교(1~4세대)

구분	판매 시기	핵심 개정 내용	자기부담률 (입원 기준)	재가입 주기
1세대	~2009년 9월 이전	보장성 강화에 초점	손해보험사 0%(전액보장)	없음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상품 표준화 자기부담률 최초 도입	급여 10%, 비급여 10~20%	15년
3세대	2017년 4월~2021년 6월	특정 비급여 항목 특약 분리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등)	급여 10%, 비급여 20% 특약 30%	15년
4세대	2021년 7월~현재	보험료 지급에 따른 보험료 차등 제(할인·할증) 도입	주계약(급여) 20% 특약(비급여) 30%	5년 (주기 단축)

하는 분들이라면 기다릴 것 없이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을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먼저 2013년 4월 이전에 가입한 5년 갱신형, 3년 갱신형 실손 특약인 1,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5세대 출시 전 신속한 4세대 실손보험 교체 여부는 조금만 더 고민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대로 있으면 보험 만기 시점까지 현재 누리고 있는 혜택을 가지고 갈 수 있지만, 부담스러운 갱신보험료를 떠안고 가야 하는 단점이 생기는 만큼,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기존 가입자들에게 정부가 추가적으로 어떠한 제도적 장치를 제시할지 확인하고 결정하면 좋다.

현재로서는 어떠한 것도 정해진 것이 없

에 당장 보험료가 너무 부담스러워 유지가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금융당국의 입장을 기다려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2013년 4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 중 가입 시점 기준 15년 재가입형에 해당되는 분들은 15년이 도래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좋다.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이 최종 발표되고 난 후 요령껏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할지 고민하면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3년 5월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 2028년 5월이 되면 당시 판매되고 있는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해야 한다.

즉 해당 시기에 5세대 실손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다면 2028년 5월이 되었을 때 5세대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만약 5세대 실손보험 출

시 직전에 4세대로 전환을 한다면 5년의 재가입 주기를 적용받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2031년 상반기까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큰 질환이 없는 이상 5세대 실손보험 판매 시작 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입 시기가 2016년 10월이고 2031년 10월에 재가입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5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되는 직전 4세대로 전환하더라도 결국 2031년에 똑같이 재가입하는 만큼 보험료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굳이 전환할 필요가 없다.

뭇되지 예외란 있는 법이다. 기저질환이 있어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분들은 보험료가 높더라도 기존 실손보험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극히 일부의 가입자를 제외하곤 실손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부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실손보험 전환을 고민한다.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보험료에 대한 불안감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코앞까지 다가온 5세대 실손보험의 출시를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선택을 했으면 하는 마음인 만큼 선부른 실손보험 전환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인생에서는 여러분도 장군이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
개정 신국판
20~30대의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성훈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지혜와 용기의 메시지

임관빈 지음 | 308쪽 | 17,000원 | 도서출판행복에너지

2030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 사랑으로 쓴 10가지 인생조언

우리는 삶을 살며 많은 일을 겪습니다. 회로에락이 뒤섞인 삶 속에서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때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이겨내는 정신력과 다시 일어서기 위한 의지를 다져야 합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에서도 여러분은 각자의 인생에서 장군이라고 했습니다. 현재의 2030청춘들이 본인의 삶의 지휘관으로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군인정신'을 발휘해 지금을 이겨내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라며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의 삶에 행복과 긍정의 에너지가 팡팡팡 샘솟으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청춘들을 사랑한 장군